



6월 8일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에 이르렀을 때,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러 왔어요.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어요. "모세,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는 거요?" "차라리 애굽에 있을 걸.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어!" 모세가 말했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것을 보시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팡이를 들어 바다로 내밀어라."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자 "휘이잉!" 거센 바람이 불어와 바닷물이 양쪽으로 갈라지고, 마른 땅이 드러났어요.

"와!" 이스라엘 백성은 갈라진 물 사이로 홍해를 건넜어요.

애굽 군대가 건너려 하자, 바다가 다시 합쳐졌어요.

애굽 왕과 그의 군대는 물에 빠져 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알쏭달쏭 수수께끼

글을 읽고 그림에서 답을 찾아보세요.
빈 칸에 이름도 써 주세요.



하나님께서 맨 처음 만든
사람이에요. 나는 하와와 함께
선악과를 먹고 에덴동산에서
쫓겨났어요.

나는 ○ ○ 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방주를
만들었어요. 가족들과 함께
방주에 들어가 홍수에서
살아남았어요.

나는 ○ ○ 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었어요. 팔족을 팔아 형이
받은 큰아들의 축복을 샀지요.

나는 ○ ○ 입니다.





물에서 건졌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지났어요.
나는 ○ ○ 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좇아 고향을
떠났어요. 아들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요.
나는 ○ ○ ○ ○
입니다.



애굽에 노예로 팔렸지만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나는 ○ ○ 입니다.



생각하는 아이

나 혼자서 못하는 것을 도와주세요

"친구들 모두 어린이날 선물 받았나요?" "네!"
남우는 새 크레파스를 떠올리며 신나게 대답했어요.
옆에 앉은 희지는 선물을 못 받은 것 같아요.
시무룩한 얼굴로 고개를 푹 숙였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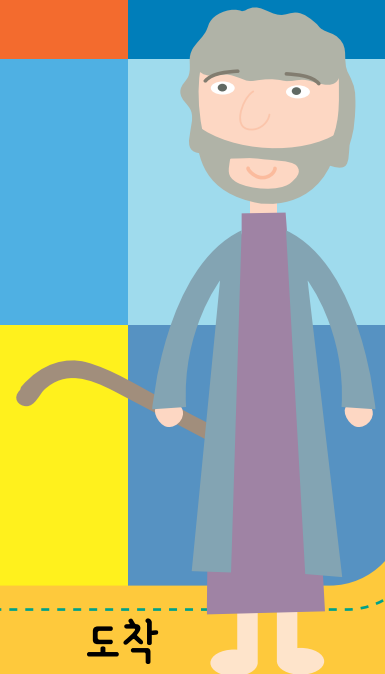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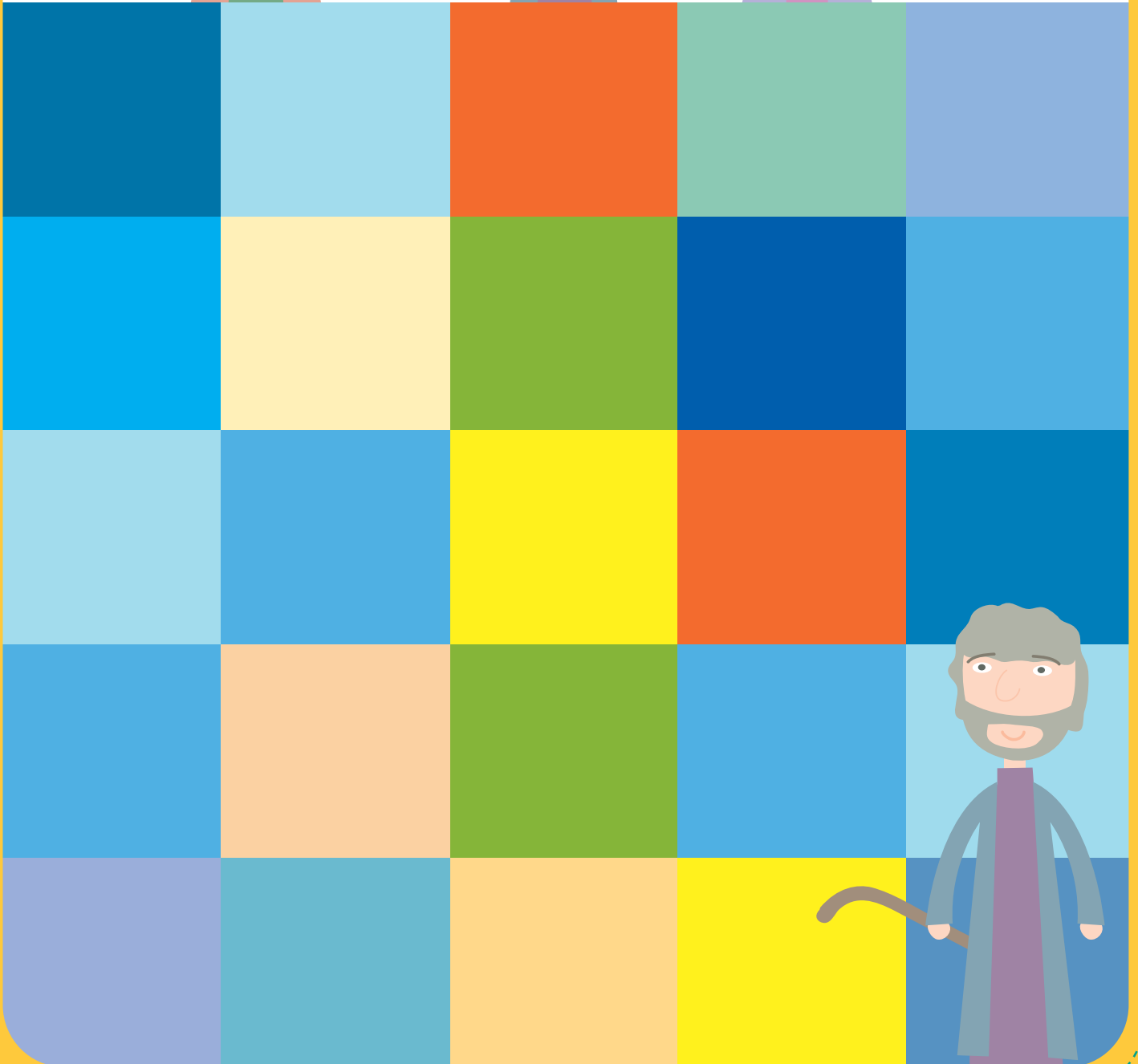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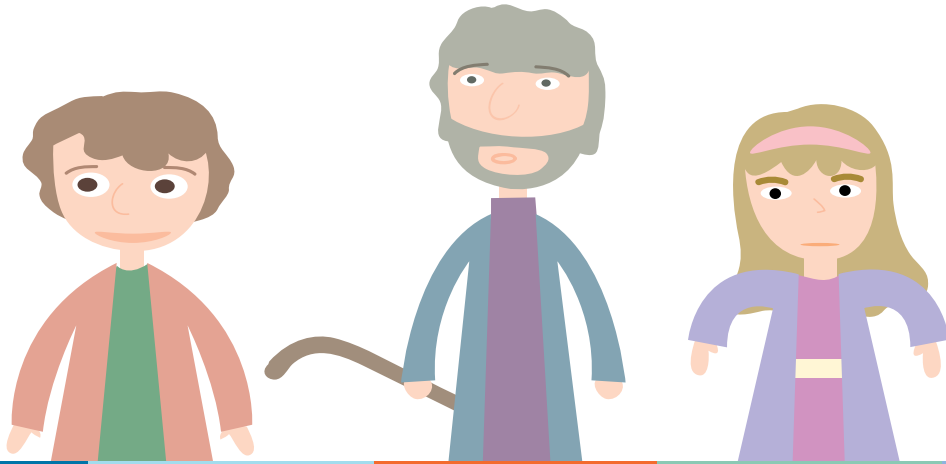


집에 온 남우는 어떻게 하면 희지가 선물을 받을 수 있을까 고민했어요. 아무리 생각해 봐도 희지에게 선물을 줄 방법이 없었어요. "남우야! 무슨 일 있어? 엄마한테 얘기해 보렴."
"네. 아까 교회학교에서 모두 어린이날 선물을 받았는데, 희지만 못 받은 것 같아요. 내 크레파스를 나눠주고 싶어요."
아빠와 엄마는 친구를 위하는 남우의 예쁜 마음을 보시고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남우가 희지에게 선물을 주도록 예쁜 크레파스를 대신 사 주셨답니다.



즐거은 활동

모세가 애굽에서 나왔어요.
빨간색, 연두색, 노란색 네모를 갈색으로
칠해서 길을 만들어 찾아가 보세요.



도착



마음속 암송

따라 쓰기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출애굽기 14장 22절

다시 쓰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선생님께

부모님께